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찾으시고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3월 2일 오중훈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찾으시고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고 《만세!》를 부르는 전투비행사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고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산천을 끝없이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위업을 받들어 앞으로 10년안에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림문제를 놓고 더이상 물러설 길이 없기에 우리 당은 산림복구도 총포성없는 전투로 간주하고 자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는것은 한평생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도 인민군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군업적이 뜨겁게 어려있으며 당의 전투명령관찰에서 육탄자폭정신이 높이 발휘된 이곳 군부대가 식수사업에서도 전군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손수 마련해가지고 오신 구름향나무, 은빛종비나무, 수삼나무, 은행나무를 심을 장소를 정해주시고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몸소 삽을 잡으시고 나무를 심으시면서 구멍이파기, 물주기, 흙다짐, 버팀대세우기 등 식수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심은 나무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모두가 일들을 간지게 잘했다고, 정성을 바친 나무들이어서 푸르싱싱 자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나무들이 무성해지면 주변환경이 정말 멋있어질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의 정화이라고 하시면서 군부대의 전투비행사들과 군인들이 조국의 재부, 후대들의 행복의 밑거름을 마련한다는 자각을 안고 산림복구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군부대에 건립한 14명 육탄자폭용사들의 위훈비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곳 부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는 물론 전후에도 미제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였으며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군대에도 없는 일당백영웅정신, 희생정신, 자폭정신을 탄생시켰다고 하시면서 이런 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더없는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447군부대의 전투비행사들과 뜻깊은 식수절에 나무도 함께 심고 14명 육탄자폭용사들의 위훈비도 돌아보니 이곳 군부대가 자신의 마음속에 더 소중히 간직되였다고, 정이 더욱 깊어졌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철주영웅을 비롯한 14명 육탄자폭용사들을 배출한 이곳 군부대가 앞으로 항공군에서 21세기의 첫 근위부대가 되여야 한다고, 영예로운 근위부대칭호를 쟁취함으로써 《근위부대자랑가》에 또 한개 절이 부대의 전투위훈내용으로 창작되기를 바란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전투비행사들이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정상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조국의 푸른 하늘을 더욱 굳건히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14명 육탄자폭용사들의 위훈비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건설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양로원의 자태가 완연히 드러났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국의 초행길을 헤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1948년 5월 승호군 만달리에 자리잡고있는 양로원을 찾으시여 로인들이 리용하는 이불과 밥그릇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며 나라에서 로인님들을 잘 돌봐드리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친어버이사랑속에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 채택되고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돌봐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양로원을 잘 꾸리는것은 우리 당의 년로자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시양로원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

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시양로원이 일떠서는 곳은 당에서 아끼던 명당자리라고 하시면서 양로원을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철저히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시양로원을 보양생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표준으로 꾸림으로써 지방들에서도 이곳을 본보기로 양로원들을 잘 건설하게 하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국의 모든 양로원들을 보양생들이 여생을 즐겁

게 보내는 보금자리로 잘 꾸림으로써 그들이 당과 국가, 전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의 선배로, 옷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값높은 삶을 꽃피워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6월말까지 평양시양로원을 세상에 돌도 없는 회한한 건축물,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고, 더 힘차게 울려퍼지는 사랑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꾸린 근위부대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새로 꾸린 근위부대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중앙홀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꾸린 근위부대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근위군기들과 근위부대들의 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근위부대라는 이름만 불러보아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대오앞에 근위군기를 휘날리며 원추격멸의 격전장들을 누비던 용감한 근위병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세월의 가장 값높은 재부로 여기시며 전군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근위부대들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이 세운 군공을 귀중히 여기고 근위병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을 우리 혁명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전쟁1, 2계단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올해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똥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력사이자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이며 우리 당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전민항쟁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를 이어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전통교양의 거점이며 반미교양의 중심기지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참관조직과 운영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일군들과 강사들이 앞으로도 자기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극악한 북침전쟁책동으로 초래될 파멸적후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벌려놓은 무분별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극히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기동전개원 미제침략군의 륜, 해, 공군타격집단들과 수십만에 달하는 괴뢰군병력이 동원되어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우리의 수뇌부 《제거》와 《평양점령》을 목표로 강행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이다.

이것은 최악의 대결상태에 처해있는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성의있는 제안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조선반도와 주변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는 용납 못할 호전적 망동이다.

내외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으로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열어나갈데 대해 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강행해나서는 것으로써 우리의 성의와 아량을 무참히 유린하고 조선반도를 거어이 핵전쟁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발악하고있다.

특히 남조선괴뢰들은 우리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초래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거듭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미국의 침략전쟁수행의 추악한 하수인, 돌격대로 발벗고 나섬으로써 저들이 떠드는 《대화》요, 《관계개선》이요 하는것들이 새빨간 거짓에 불과하며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와 대결하려는 속심밖에 없다는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쌓이고

쌓인 분노와 멸적의 기세로 백년속적 미제국주의를 파멸시키기 위한 최후의 관가리결전에 떨쳐나섰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참변을 악의 총본산인 미국 본토에 들쳐우고 우리의 정의의 위업을 수호하며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려는것은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침미사태와 굴종에 체질화된 괴뢰당이 상전의 침략책동에 추종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해나선것은 부나비가 불속에 날아든것과 같은 가장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과 야합하여 괴뢰당이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에 몰아넣고있는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1.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에 추종하여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나선 이상 우리 천만군민은 미제침략자들과 함께 괴뢰호전광들을 무자비한 초강경대응조치로 단호히 징벌할것이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해나서는것은 백두령장의 기상과 담력을 그대로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고 배짱이다.

빈말을 모르는 우리 군대의 지상과 해상, 수중과 공중, 싸이버공간의 모든 타격수단들이 지금 목표물들을 겨누고 격동상태에 있다.

죽을 때까지 미국의 식민지노복, 전쟁머슴군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는 괴뢰당은 미국의 침략도발책동에 수십만의 괴뢰군을 대포밖으로 내몰고 남조선의 전 령토와 령공, 령해를 무제한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우리 군대의 보복타격의 파격으로 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의 힘을 빌

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망상하면서 합동군사연습에 가담해나선것이야말로 미제침략자들과 함께 파멸의 구렁텅이를 파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의 사환군으로 나섬으로써 도발자, 침략자들을 단호히 불마당질해버리려는 우리 혁명무력의 징벌을 면할수 없게 되였으며 그것은 곧 괴뢰당의 파멸적종말로 될것이다.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신성한 조국강토를 넘겨다보는 대결미치광이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불의의 세례를 안겨 조국통일대전을 최후의 승리로 결속할것이다.

2. 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연습의 불질로 정면대전해나온 조건에서 북남대화외 관계개선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으며 오직 힘의 대결에 의한 최후의 결판만 있게 될것이다.

우리는 올해에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갈데 대한 중대제안을 내놓으면서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둘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괴뢰당은 미국상전과 함께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려놓는것으로써 그에 정면대전해나섰다.

지금 괴뢰당은 미제침략자들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면서도 이번 전쟁연습과 북남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느니 뭐니 하는 일도양없는 꾀변을 늘어놓고있다.

대화는 전민족의 념원에 맞게 북

남관계개선의 길을 순조롭게 열어가기 위해 필요한것이지 결코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행동을 합리화하고 전쟁도발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연막이 아니다.

전쟁화약고에 불을 질러놓고 단전을 피우며 《대화》라령에 악정을 돌구어야 그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동족에게 함부로 총부리를 내댄 대결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해버릴 우리의 결전의지만 더욱 굳세어질뿐이다.

대결과 전쟁에 미친자들과는 리성이 통하지 않으며 대결의 악순환밖에 초래될것이 없다는것이 북남관계의 교훈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저들스스로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의 천금같은 기회를 차버리고 전쟁의 화를 불러들인 후과가 그 얼마나 비참한것인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것이다.

3.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과 괴뢰당의 극악한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

오늘 조성된 사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을 조장하는 장본인 바로 미제와 그 주구인 남조선괴뢰당이라는것을 다시금 푹푹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를 병란하고 아시아지역에 대한 패권적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조선괴뢰들을 값높은 대포밖으로 썩여뜨려 놓고있으며 북남대결을 격화시켜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개입과 간섭의 명분을 세워보려고 발악하고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붕괴》를 공공연히 떠들면서 우리의 핵문제를 집요하게 걸고들다 못해 비릴하게도 있지 않은 《북인련》문제까지 국제화하려고 책동하고있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침략과 전쟁이 날강도 미국의 존

재방식이라면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굴종과 추종은 남조선괴뢰들의 체질화된 생존방식이다.

미국에 군통수권마저 통채로 넘겨버리고도 수치를 모르고 무고한 젊은 생명들을 총알받이로 내몰면서도 이것을 《혈맹관계》로 떠들고있는 쓸개빠진 역적들이 바로 괴뢰당이다.

현실은 미국과 괴뢰당의 북침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민족이 편안할수 없으며 핵전쟁참화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미국과 괴뢰당의 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 반미통일성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때이다.

우리가 진행하는 반미대결전과 조국통일대전은 민족의 불행과 아픔을 안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온갖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대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미국과 괴뢰당의 전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것이다.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현 사태에 응당한 주목을 돌리고 미국과 괴뢰당의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것이다.

최후승리는 정의의 위업실현에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으며 미국과 괴뢰역적당에게 차례질것이란 쓰디쓴 참패와 중국적멸망뿐이다.

극악한 북침전쟁책동으로 초래될 파멸적후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침략자, 도발자들은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주제 104(2015)년 3월 3일 평양



# 백두령장을 모시여 승리하는 조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으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압살책동에 종지부를 찍고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서 온 겨레는 최후승리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낙관하고있다.

비범한 예지와 슬기, 비상한 사상리론적자질과 해박하고 다문박식한 실력과 령도적수완, 완강한 공격정신과 불굴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그이의 특출한 위인적품모에는 이 나라 천만산악을 거느리고 조종의 산으로 우뚝 솟아있는 백두산의 기상이 그대로 어리어있다.

만리창공을 치솟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지니시고 온갖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강성번영의 미래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조선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불세출의 령장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비의 담력과 천변만화의 지략으로 침략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신다.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력과 배짱은 판문점에 대한 현지시찰을 놓고도 이야기할수 있다.

그이께서는 미국과 남조선군 부호전세력이 합동군사연습을 한창 벌리고있는 침예한 시기에 판문점을 찾으시었다. 대낮에 판문각로대에도 오르시여 쌍안경을 드시고 남쪽을 굽어보시며 적정을 알아보셨고 경계근무중인 병사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시었다.

적아간의 총구가 대치되어있고 흐르는 공기마저 팽팽한 최전연의 최전방초소에서 적의

동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병사들에게 조국수호의지와 멸적의 용맹을 북돋아주시는 그이의 판문점시찰은 민족에게 조국통일대전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반통일, 반평화, 반민족분렬세력에게 커다란 강타를 준 백두산장군의 전신시찰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현대전에 정통하시고 결심이 단호하고 타격이 무자비한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다.

남조선의 인터넷에 실린 그이의 전법에 대한 글에서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민중중심의 전법과 미국과 그런 합세력의 군사력을 역리용하는 전법에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현대전법을 결합시킨 전법이 바로 김정은원수님의 주체전법의 현대전화다.》고 하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대전에 정통하시고 현대적인 무기들을 자유자재로 다루신다는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결심에서도 단호하고 타격에서도 무자비하다. 그이의 단호한 결단력과 무자비한 타격에 대해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이렇게 서술하고있다.

《...배심과 패기,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을 판별하는 능력을 지닌 김정은령도자는 인내심을 시험받지 않으며 즉각적인 타격과 섬멸전으로 나갈것이다.

인공지구위성과 특수핵무기, 첨단미사일연속발사 등의 강력한 타격만 놓고보아도 미국은 김정은령도자의 원숙한 정치군사적자질을 시험하지 말

아야 한다.》

최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근위 제1항공 및 반항공사단관하 추격기, 폭격기련대들의 비행전투훈련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기계화 타격집단 장갑보병구분대들의 겨울철도하공격연습, 섬화력 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 등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 비범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신 그이의 위인상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얼마전에도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이 날로 더 악랄해지고있는 침예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여시고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문제들을 토의하시었다. 이날 회의

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그이께서는 인민군대가 적들이 강요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대응할수 있도록 단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미제와 반드시 치르게 될 전쟁수행방식과 그에 따르는 작전전술적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인민군대의 정치, 군사, 후방, 보위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전시환경에 접근시켜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조국해방 70돐을 맞는 올해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것이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립장이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의 반민족, 반통일세력은 우리 민족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고있으며 반공화국압살을

겨냥한 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서 한결음도 벗어나지 않았으며 대결을 고취하는 남조선당국의 민족분렬책동은 변함이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정세가 날로 더욱 엄혹해지고있는 속에서 최근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여러 군중, 병종부대들의 전투훈련은 분별을 잃고 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섬멸적인 정벌을 안길 천출명장의 단호한 결심과 철석의 의지의 파시로 되는것이다.

백두령장의 슬하에서 조선인민군은 국지전이면 국지전, 전면전이면 전면전, 핵이면 핵 등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맞서 싸워 반드시 이길수 있는 단단의 준비를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선군령장의 탁월한 령도밑에 세기를 이어오는 미국과의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조국통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적대세력이 아무리 반공화국전쟁압살의 광풍을 몰아와도 천출명장이 계시고 무적의 강군이 있어 나라의 안전은 굳건히 수호되고있으며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의 사소한 불찌라도 이 땅에 뒹긴다면 멸적의 불화살이 미국본토를 박살내고 그에 아부굴종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남조선호전세력을 단호히 요정내게 될것이다.

명장의 지휘밑에 백승의 전통을 자랑하여온 백두산강군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으며 조선민족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백두산천지

3월 2일은 공화국에서 식수절이었다. 온 나라 인민과 군대가 떨쳐나서 산과 들에 나무를 심었다.

이날은 또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위협천만한 《키 리졸브》, 《독수리》 북침합동전쟁연습을 개시한 날이기도 하였다.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려고 침략전쟁연습의 불구름을 몰아오던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고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몸소 나무를 심으시었다.

온 나라 인민이 신문과 TV로 그날의 숭고한 화복을 보았다.

손수 마련해가지고 오신 구름향나무, 은빛종비나무, 수산나무, 은행나무를 심을 장소도 정해주시고 몸소 삽을 잡으시고 정성다해 나무를 심으시던 모습, 구멍이파기, 물주기, 흙다짐, 버팀대세우기 등 식수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는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비행사들에게 가르쳐주시던 숭고한 영상... 그날 원수님께서서는 땅에 단순히 나무만 심지 않으시었다. 애국의 뜨거운 념과 헌신의 땀방울도 묻으시었다.

식수를 하던 장소에서 원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

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의 정화이다. ...

세상을 둘러보면 누구나 애국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애국심을 그토록 숭고하고 높은 경지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지도자는 없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창조와 건설의

수필

## 원수님 심으신 나무

새 력사를 펼치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펼쳐가고계시는 원수님이다.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최상최대로 빛내주시려고 천하제일강국의 웅대한 구상도 펼쳐주시고 애국가가 울릴 때면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는 절세의 애국자.

그이께서 얼마나 이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시면 《조국찬가》의 격동적이고 환희로운 노래가 이 강산에 울려 퍼지게 하여주시고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

주라는 고귀한 말씀까지 하시였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시는 이 땅의 귀중한 모든 재부, 아름다운 산과 강하천은 물론이고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조국의 한 부분으로 너무도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

이런 귀중한 우리의 땅,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침범하려고 적대세력들이 총포소리를 울리며 달려들고 있으니 누군들 분노의 피

속에 불탄것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눈이 뒤집히게 하루빨리 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 이실 굳은 결심이였고 우리의 귀중한 모든것을 빼앗으려는 침략자, 그 추종세력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멸적의 의지였다.

원수님의 애국의 숨결과 념과 땀방울이 스며들어있는 소중한 나무, 이것은 강성국가의 역센 줄기와 가지로 뻗고 행복의 무성한 잎과 열매를 주렁지게 할 조국의 크나큰 재부이며 그 어떤 침략의 광풍도 막아주는 애국의 《방풍림》, 역센 성벽이 되리라.

미국은 항공모함이요 하는 것들을 가지고 떠들지만 이 땅의 군대와 인민에게는 그보다 몇배, 몇백배 더 우월하고 위력한 정신적무기-김정일애국주의가 모두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아니라 사상과 정신이 결정한다. 뜻깊은 식수절날 모두가 목격한 원수님의 뜨거운 애국심, 온 나라 인민과 군대의 드높은 애국열의는 침략의 광풍을 짓누르며 머지않아 반미대결전,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의 축포성을 이 하늘가에 자랑스럽게 터쳐올리게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 실전능력, 지휘능력의 소유자로

지난해 5월 인민군대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가 있었다. 건군사에서 처음으로 있는 경기대회는 그 명칭으로부터 조직과 준비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기에 따라 진행된 훈련경기였다.

련합부대장조와 군부대장조로 나뉘어 진행된 그날 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공군상장을 비롯한 지휘성원들이 자기들의 능란한 비행술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비행술을 지켜보신 원수님께서서는 지휘성원들이 자기앞에 부과된 비행임무를 완

만히 수행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항공군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최고사령부의 작전적구상과 의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지휘성원들에게 달려있다고, 지휘성원들이 높은 전투비행술을 소유함으로써 모든 비행사들을 하늘의 결사대로 역세게 준비시키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시었다. 적대세력의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정세가 전쟁접경에 이르고있는 때에 항공군의 모든 비행부대 지휘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된 비행술경기는 그이의 탁월한 지략과 령군술의 비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 불의에 정황과 명령을 주시여

지난해 1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불리한 일기조건에서의 해군의 해상기동 및 수송능력과 함운용실태, 특수작전부대들의 기습적인 상륙과 대상물 습격전투능력을 검열관정하고 경험과 교훈을 분석총화하여 특수작전능력을 한층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조선인민군 제572대련합부대와 제630대련합부대관하 부대들의 련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시었다.

그날 훈련전과정을 보시고 훈련결과를 평가하시며 극복해야 할 결함과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신 원수님께서서는 내가 임의의 시각에 불의의 정

황을 주고 부대들의 훈련을 조직하군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오늘의 훈련이 래일의 싸움, 우리 조국의 운명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하시었다.

두해전 2월에도 포병부대들의 실전능력검열을 위해 화력타격훈련을 조직할데 대한 명령을 불의에 하달하시고 현지에서 훈련을 지도하신 원수님께서서는 포병들은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명중탄을 날릴수 있게 경사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하고있다가 적들이 불질을 해대면 무자비하게 답사기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비범한 지략과 령군술



# 이 땅의 웃음을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다

평양의 룡라인민유원지에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웃음집이 있다. 누구든 한번 이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마음이 더욱 즐거워지고 젊어지곤 한다고 하여 늙은이건, 어린이건 저저마다 찾고있다.

인간생활, 사회생활에서 웃음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 요소이다. 인민들이 행복의 웃음,

생활의 웃음을 더 많이 지으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풍치수려한 룡라도의 한복관에 이렇게 인민을 위한 사랑의 웃음집을 지어주시겠다는.

비단 웃음집만이 아니라 온 나라 그 어디서나 인민들의 기쁨의 웃음소리, 행복의 웃음소리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 날로 커가는 인민의 웃음

웃음은 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도, 강요로도 지어낼수 없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없다면 어찌 표정 밝은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울려나올수 있으랴.

웃음은 마음의 반영이고 그 마음은 생활의 반영이다. 공화국에서 날로 높아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날로 커가는 소리이다.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하던 나날 공화국에서는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신념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높이 울려 퍼졌다.

아버이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걸으신 선군천만리, 인민을 위해 겪으신 천만고생이 만복의 씨앗이 되고 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져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기 위한 최선의 창조물들이 도처에서 련이어 솟아나고있다.

룡라인민유원지에 이어 문수물놀이장이 꾸려지고 미림

승마구락부에 이어 마식령스키장도 건설되고 옥류아동병원을 비롯 현대적인 병원들이 새로 일떠섰다. 거리주변과 마을 곳곳에는 또 얼마나 많은 공원, 유원지들이 꾸려졌는가.

인민을 위해 국가가 자금을 들여 멋지게 꾸려준 공원들에서는 일요일, 명절날은 물론이고 점심시간이나 퇴근이후시간에 즐거운 휴식을 하며 다채로운 체육경기를 하는 사람들로 언제나 흥성이고있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일어 먼저 일터들에서도, 마을들에서도, 경기장들에서도 경기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들의 흥에 겨운 소리, 웃음소리 그칠 줄 모른다.

후대중시, 미래중시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세상에 부럽없어라》는 노래소리와 함께 더 높아졌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각지의 소년단야영소들에서도 학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는 해를 이어 계속 울리고있다.

과학자, 교육자들을 내세

워주는 국가의 정치아래 새로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들에서 과학자, 교육자들의 웃음소리도 더욱 높아졌다.

날마다, 달마다 자기들을 위한 국가적배려가 거듭 돌려지니 과학연구와 후대교육사업에 종사하는 공지와 자부심이 더욱 커진다는 이들이 터치는 웃음소리, 이들의 가정마다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행복의 대동강반에도 호르고 아바트차가마다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가 호렐부럽지 않은 궁결같은 노동자합숙과 현대적인 살림집들도 지어주니 《우리 세상은 근로하는 인민의 세상》이라며 노동자들은 또 얼마나 좋아하고 웃음에 넘쳐있는가. 적대세력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100년래의 왕가물도 이겨내며 자기의 힘으로 농업생산도 늘여가고 분배도 많아지니 농민들

## 대포소리보다 더 강한 인민의 웃음

웃음은 장자의 여유이다. 앞날에 대한 밝은 기대, 확신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이 잘되고 인민들이 잘사는것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고 이 나라 남녘로소의 얼굴에서 웃음을 앗아가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이 몰아오

또한 얼굴에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빛이 있고 어둠이 있기마련이다. 한쪽에는 웃는 얼굴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늘진 얼굴이 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어둠도 그늘도 없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비껴있다. 세상에서 설음의 대명사로 되고있는 부모없는 고아들, 공화국에서 령도자가 제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아이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들모두에게는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친것보다 훨씬 더 크고 뜨거운 원수님의 사랑이 있다. 그들을 어찌 고아라고 하랴. 이 세상 제일 행복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웃음소리가 행복의 육아원, 애육원들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반만년 오랜 세월, 세세년년 바라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빛나는 현실로 련이어 펼쳐지니 이 제도가 좋아 인민이 웃고 이 정치가 제일이라며 인민들이 기쁨과 행복의 웃음을 마음껏 터뜨리고있는것이다.

는 북침전쟁연습의 불구름은 남조선과 그 주변바다의 상공에 대라쳐오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봉쇄도 여전히 고이 제도와 정권, 인민을 분리시키기 위한 비렬한 심리모략전, 《인권》공세도 기승을 부리고있다.

그러나 존엄에 살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행복의 삶을 구가

하는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는 적대세력들의 총포소리를 누르며 이 땅, 이 하늘가를 가득 메우고있다.

아직 공화국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남아있다. 물질문화 생활에서 부족할것들도 있다. 그러나 인민의 웃음은 날로 커가고있다. 인민은 무엇을 보기에, 무엇을 믿기에 마음의 웃음을 짓고 생활을 랑만에 넘쳐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최후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이다.

우리를 못살게 굴고 악한짓을 다해온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에서 조선이 반드시 이긴다는, 벌써 싸움에서 이겼다는 믿음과 확신, 신심과 배짱이 강자의 웃음을 터뜨리게 하고있다. 미국이 당장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 하는데 자신만만함이 없어야 인민들이 불안에 잠겨있지 웃을수 없다. 그러나 천출명장이 계시기에 승리는 조선의것이라는 자부와 믿음은 모두를 신념의 강자들로 되게 하고 오만한 미국과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하자는 자신만만한 배짱으로 이어져 가정과 일터마다에서 승리자의 웃음소리 그칠 새 없다.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하늘땅이 무너지는것과 같은 상실의 최대아픔도 당했지만 령도자를 받들어 기세차게 나아가고있는 공화국의 군민에게는 미국이 강요하는 제재와 압력, 전쟁위협같은 것이 불속에 뛰어드는 부나비

들의 가소로운 늙음으로 인식되고있다.

경제강국건설, 체육강국건설, 문명강국건설, 인재강국건설, 교육강국건설 등 최후승리의 그날도 머지않아 인민은 밝은 앞날에 대한 확신에 넘쳐 더 크게 웃고있다.

우리 조국이 가고있는 밝은 미래, 그것은 김정원수님의 환하신 웃음에 그대로 비껴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기 위한 창조의 건설장들에 계시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환하신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세상을 밝히는 햇빛같은 그 웃음, 거기에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고 승리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있으며 인민에 대한 마를줄 모르는 사랑이 넘쳐흐른다.

인민은 매일같이 령도자의 그 웃음을 보고있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가 가는 길이 옳구나, 원수님만 따르면 우리는 이기고 만복을 누려가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힘과 용기에 넘치고 창조와 건설의 동음을 더욱 힘차게 울려가고있다. 원수님의 웃음은 곧 인민의 웃음으로 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이 나라 인민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지워버리려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지만 웃음속에 사는 인민, 웃음속에 전진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힘을 당할자는 행성에 없다.

본사기자 흥범식



- 문수물놀이장에서 -



- 마식령스키장에서 -



-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

## 자체의 힘으로 질 좋은 합성가죽제품을

자력갱생공장으로 자랑 높은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질 좋은 합성가죽제품들이 생산되고있다.

합성가죽이란 말그대로 겉모양을 가죽과 비슷하게 만든 가죽대용품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합성가죽은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가죽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1950년대부터 생산되고있다.

날이 갈수록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신발을 안겨주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3년 12월 지난날 짚신이나 고무신밖에 못신었던 우리 인민들에게도 이제는 가죽신발을 신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안남도 평성시에 인조가죽공장을 세움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그리고 1979년 2월 시운전단계에 있는 공장을 찾으시어 합성가죽공장으로 이름까지 지어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구상을 받들고 공장에서는 자

### 평성합성가죽공장

체의 힘으로 공장건물을 일떠세웠으며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설비조립을 끝내고 조업을 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후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염화비닐도포에 의한 합성가죽생산과 유락염화비닐의 국산화를 실현하여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공장의 김에원직장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2011년 10월 공장을 찾으시어 하신 말씀에 따라 현대적인 건식수지도포와 습식수지도포생산 공정, 부직포생산공정을 새로 꾸렸다고 하면서 대 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직접도포기의 압착로라기와 천열처리기를 개조하여 합성가죽의 문양과 광택을 개선하는 등 16가지 합성가죽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말하였다.

용매회수생산공정설비를 조립할 때의 일이다. 공장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외국기술자들이 공장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고 한 500t무게의 합성랑크와 50m높이의 증류탑 등 복잡한 설비를 조립을 집체적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성공적으로 해내고 공사기일을 훨씬 단축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용매회수생산공정을 꾸려 습식도포합성가죽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공장에서는 기술적수준이 높아진데 맞게 제품의 질을 더욱 끌어올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합성가죽과 EVA발포체를 접합할수 있는 생산공정, 잔디부직포생산공정, 장력도포실현공정 등을 확립하여 여러가지 질 좋은 합성가죽과 추구공, 배구

공, 룡구공, 가방 등 19종의 새 제품들을 수많이 개발하였다.

자체의 힘으로 설비들의 현대화를 실현하니 제품의 질적수준은 저절로 올라 공장제품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전국의 신발공장들에 신발생산에 필요한 합성가죽과 합성섬유창 그리고 가방생산에 필요한 합성가죽을 생산보장하고있다.

김에원직장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질제고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부단히 노력할데 대하여 주신 말씀에 따라 앞으로 더 좋은 구두를 만들기 위한 질 좋은 합성가죽을 생산하겠다.》고 하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한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더 높여 발양시켜나간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최래성



합성가죽들이 생산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가방들



#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조선반도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 관계개선의 기회를 날려보낸 호전광들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강행게시로 조선반도에는 불과 불이 오가고 전면전쟁에 치달을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공화국은 어떻게 하나 조국해방 일흔돛이 되는 올해에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열어 나가려는 의지에서 남조선당국이 체제대결을 그만두고 외세의 합동전쟁연습을 그만둘데 대하여 알아들을수 있도록 권고하고 연습의 후과에 대해서도 경고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현 당국은 화해의 손질을 보내는 동족을 배척하고 적대시압살야망에

사로잡혀 《붕괴》를 떠들며 전쟁연습강행의 길에 들어선 미국에 합세하였다. 이로써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대결본색은 더욱 날날이 드러나고 그들에게는 오직 《변화》와 《흡수통일》의 어리석은 망상밖에 없다는것이 똑똑히 밝혀졌다. 북남관계를 개선이 아니라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국면으로 치닫게 한것은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민족앞에 지은 두고두고 씻을수 없는 죄악이다. 온 겨레가 지금 민족화해가 아니라 북침전쟁의 길을 택한 남조선의 호전세력을 저주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북

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를 눈섭 하나 까딱 안하고 날려보낸 대결광신자들은 력사와 민족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것인가를 이제 똑똑히 깨닫게 될것이다. 공화국은 지금 미국과의 누가 누구를 하는 최후결전에 진입한 상태이다. 세기를 이어오며 자기를 적대시하고 암살하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하는 미국과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결판을 내고 저주랑쳐놓겠다는것이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이 물러설수 없는 미국과의 최후결전의 마당에 남조선당국이 비굴한 전쟁머슴군이 되어 동족을 해

치겠다고 같이 뛰어든것은 자멸을 부르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친미굴종의 더러운 력사만을 써온 남조선보수당국은 침략적인 외세의 전쟁도발책동에 수십만의 남조선군을 대포박으로 내몰고 전평토와 령공, 령해를 통채로 제공함으로써 제스스로 남조선을 공화국의 보복타격의 과녁으로 되게 하였다는것을 모르고있다. 죄에는 벌이 따르기 마련이다. 침략에는 정의의 징벌이 내려진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저들의 전쟁책동으로 초래될 돌이킬수 없는 후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범죄적인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 응 철



## 《전쟁연습때문에 불안해 못살겠다》

《한》반도의 긴장고조로 이남민중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날로 커지고있다. 3월 2일부터 이남에서는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었다. 하여 이남의 전역이 또다시 질은 화약내, 하늘땅을 뒤 흔드는 총포소리에 잠겨 들고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판에 전쟁연습때문에 전쟁날가봐 불안해 못살겠다》는 민심의 절규가 더 크게 울려나오고있다. 박근혜 《정권》 2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국민들도 살기 더 어려워졌는데 이 《정권》은 동족의 화해의 손길도 뿌리치고 미국과 북침전쟁공조에만 갈수록 더욱 혈안이 되고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분계연선지역이나 군사연습장 인근지역들에서는 끊임없는 합동군사연습과 대포소동으로 농민들이 농번기에도 일을 못하고 땅을 묵이는 일이 빈번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탄속에 정든 고장을 떠나가고있다. 농사는 적기를 놓치면 폐농이 당연한것이라 전쟁연습소동이 농번기를 가림이 없다보니 농민들이 그 피해를 보는것이다. 그러한 지역들에서는 경칩(3월 6일)이 지났는데도 연제 떨어질 포탄에 맞아

죽을지 몰라 땅속의 개구리도 세상밖에 나올 엄두조차 못내고있다는 웃지 못할 유모야도 들고있는 판이다. 서해 5개 섬과 주변바다에서는 또 그곳대로 그렇게 많던 고기배들이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섬주민들도 하나둘 집을 꾸러기 시작했는지 이제는 누구 눈치보는것 없이 너도나도 하는판이다. 그도 그럴것이 계속되는 전쟁연습에 격분한 이북이 무섭게 반발하며 온 이남과 주변바다를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버리는 판이다. 돈 몇푼 벌려다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불소나기에 들어물고기밥이 되기보다는 일제감치 피난가는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해야 할것이다. 북이 핵무기와 운반수단까지 갖춘 군사강국이라는것은 세상이 공인하고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호랑이의 그 드센 주먹에 얻어맞아 뼈도 못추릴수 있다. 지금 북은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을 총결산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진입한것으로 알고있다.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미국이 원하고 택하는 전쟁을 하자며 미국본토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에 외세와 함께 이남군대가 총부리를 들이대봐야 보복과 과멸의 불소나기를 같이 들쓸수밖

에 없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남조선의 평택미군기지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규모로 확장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미군부력이 확장되는 평택미군기지로 이동한다는 설도 있다. 현재 이남에 주둔한 미군만도기가 막힐 정도인데 미군주둔부력이 점점 늘어나면 그때문에 겪게 될 수난과 불행 또한 비례되게 커질것이다. 말로만 《벗》일뿐 이남민중을 알길 우습게 알고 《집령군》 행세를 하며 별의별 추악한짓을 서슴없이 일삼는것이 다름아닌 남조선주둔 미군이다. 이제 얼마나 많은 윤금이들과 호순이, 미선이들이 또 생겨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런가 하면 미군기지에서 류출되는 기름과 각종 유해물질로 땅과 물, 공기가 오염되고있으며 소음공해와 빈번한 오발사고로 공포와 불안이 가세될줄 모른다. 해마다 전쟁연습에 증강되었던 미군은 슬금슬금 저들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미군기지들에 떨구어두는가 하면 비밀리에 전쟁 장비와 물자들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이며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한》반도 긴장격화의 주범이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군때문에 이남에서는 사람도, 땅도, 하늘도 원한에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 겨레의 운명을 마음대로 통략하고 유린하는 이러한 미국에 라매는 커녕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의 합동군사연습도 해마다 벌려놓는 이남당국자들은 미국의 한갓 전쟁머슴군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이남민중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나라꼴이 개판이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100년동안 사람이 살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된다. 경제도 복지도 생명이 먼저다. 전쟁이면 말짱 도루묵이다. 《한》미당국은 평화를 위해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라.》 이남당국자들의 비인간적인 처사로 지난해 4월에는 《세월》호참사로 수백명 아이들의 목숨이 차디찬 바다물속에 수장되었다. 이번엔 벌리는 전쟁연습소동이 자칫 전쟁으로 번져져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름모를 산골짜기와 들만에, 날바다속에 목숨을 버리게 될는지 누구도 모른다. 《세월》호피해자들속에 고위당국자나 재벌들의 자식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전정판에서 목숨을 잃기 싫어 당국자들이나 재벌들의 자식들은 벌써부터 《방문》이니, 《유학》이니, 《연수》니 뭐니 하는 구실을 대고 외국으로 뺨소니를 치고있다는 소문이다. 돈이 없고 권세없는 백성들만 녹아날 판이다. 이 땅의 전쟁위기는 누가 만들어놓았는데 저들은 살고 힘없는 서민들과 사병들은 전쟁사판에 내맡기려는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죽이는 《정권》이라 해야 할것이다. 재카나다동포 강 의 수

## 민족의 통일념원에 대한 우롱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둬 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휘조종하에 끝끝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한것은 평화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념원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다. 조성된 사태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이야말로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에 사로잡힌 전쟁광신자들이며 이들이 있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도,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이룰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상전의 발뒤꿈치에 매달려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덤비는 이상 자비를 모르는 백두산총대는 도발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건, 그 무엇을 들고 달려들건 관계치 않고 모조리 쏙대발으로 만들어놓을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은 분노한 우리 천만군민의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무자비한가를 저승에 가서나 깨닫게 될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리 철 민

◎ 각계층 거품의 불꽃의 목소리 ◎

## 승냥이와 한통속인 여우도 잡아야 한다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고 행동은 《붕괴》 망상에 사로잡혀 대조선압살에 미쳐달뛰는 승냥이미제의 전쟁책동에 추종하여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고 있는 남조선보수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올해가 어떤 해인가. 바로 지금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달뛰는 미국놈들에 의해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이 둘로 쪼개진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분렬의 아픔이 세기를 이어오고 강산에 가득차 이제 대결과 전쟁연습소동을 중지하고 관계개선의 새 력사를 쓰자는 우 리 공화국의 통일애국의 호소에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끝끝내 북을 무력으로 치겠다는 전쟁광기로 대담해나섰다. 《대화》요, 《관계개선》이요 하던것도 기만이고 그들의 본심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과 조금도 다름바 없다. 승냥이와 한통속인 여우도 때려잡아야 한다는 어릴적 본 동화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미국놈과 한통속인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에게도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징벌을 내리야 한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김 병 환



불 바다에 잠긴 연평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시론 《빛섧은 〈한〉 미공조》?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유행어처럼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이 있다. 《빛섧은 〈한〉 미공조》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지난 2월 23일에도 남조선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외교협회 대표단 초청오찬에 참가하여 《양국간에는 한치의 빛섧음도 없다.》고 야양을 떨었다.

물섧은 정도가 아니라 빛도 새지 못하게끔 《〈한〉 미공조》가 단편하다는 소리일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면 《〈한〉 미공조》가 그렇게도 견고한가 하는 생각보다 남조선당국에 대한 측은한 생각이 앞서곤 한다.

《〈한〉 미동맹》이 빛섧음이 짝 맞물려있다고 하지만 미국과 남조선이 융합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가. 당도, 력사와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며 언어도 다른 두 사회이다. 한 때 반미의 초콜바다가 펼쳐질만큼 미국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감정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빛섧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틈이 있는 게 사실 미국과 남조선의 수직관계이다.

그런데도 《빛섧음 없다.》는 껌변을 먼저 늘어놓은 것은 미국이다. 지난 1월 초 워싱턴을 찾아가던 윤병세 남조선외교부 장관 앞에서 미국무장관 케리와 국방부 장관 헤이글(당시)은 《박근혜의 확고하고 원칙적인(대북정책)을 지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의 핵문제이다. 북의 핵 및 미사일문제와 확산에 대처하는데서 〈한〉 미는 〈한치의 빛〉도 들어올 틈이 없이 단결되어 있다.》고 떠들었다.

미국으로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8.15이후부터 미국이 명줄을 거머쥐어온 남조선을 더욱 바짝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고 《하인》

이 제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기도에서 《빛섧은 개살구》같은 《빛섧은 〈한〉 미공조》란 말을 외웠을 것이다. 얼마나 미국이 남조선을 우습게 보고 미국에 고분고분하기만 하는 종속물로 여기고있으면 《빛섧음 없다.》는 표현까지 썼겠는가.

가관은 그 진속도 모르고 수척도 모르고 상천이 하는 말을 즐겨 되받아 외우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어리석은 행위이다. 친미사대와 굴종에 찌들어 빼앗긴 군사주권도 안둘러받겠다고 애걸하는 남조선당국이요 보면 미국에 더욱 얽매어사는 것이 그리도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지머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한〉 미관계가 빛섧음 없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어색한 말은 미국없으면 못사는 그들의 종속적인 처지와 극도에 이른 친미굴종주의를 보여주는 대명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국해방 일흔둠,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이해에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북의 진정한 획기적제안도 걸어차고 《북조선붕괴》를 웨치는 미국의 전쟁머슴군이 되어 지금 이 시각에도 대령토와 령해, 령공을 통채로 북침전쟁터로 내주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의 포문을 연 것이리라.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툭툭히 알아야 한다.

그 《빛섧은》 반민족공조를 자랑하며 그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남조선이 미국의 한계 주가 되고 미국과 최후의 결판을 보려는 공화국의 단호하고 무자비한 정벌에 의해 미국과 함께 처참한 파멸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허성철

남조선집권자가 《해외순방》의 길에 올랐다.

하필이면 왜 이 시점인가?

녀성의 예민한 감각인지 아니면 세파에 부대끼며 얻은 정치적후각이 발달해서인지 남조선집권자의 해외행각은 매번 시기가 참으로 묘하다.

그 몇가지만 보자.

2013년 4월, 당시는 특대형부정선거를 두고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면 민심이 들고일어났고 그를 모면하려고 집권세력은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세력》,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중이었다.

그렇게 정지풍량이 세차던 때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남조선집권자는 미국의 《인증》을 받으러 첫 해외나들이를 떠났던 것이다.

지난해 4월 특대형참사인 《세월》호침몰사건으로 남조선은 일대 초상집

이 되었다.

사고원인을 해명하고 주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최종책임은 집권자에게 있다는 데로 비발했다.

사고에 제때에 대응하지 못했고 구조대책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수백명의 아이

## 사지판에서 먼저 탈출

들을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한데 대한 민심의 응당 한 저주이고 분노였다.

초점이 자기한테로 쏠리게 되자 남조선집권자는 부랴부랴 《대국민담화》라는것을 벌리고 눈물 몇방울 떨구고는 또 해외나들이를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참 놀라운 림기응변이다.

그럼 지금은? 정세가 더욱 심상치 않다.

살기는 힘들고 선택은 자살뿐, 《종북》소동에 지치고 전쟁위험, 긴장격화로 언제 맘 편할 날이 없었던 남조선인민들이 민생, 민주, 북남관계와 탄의 책임을 집권자에게 묻는다.

《박근혜 2년 이것도 나라냐.》, 《못살겠다. 다

그 전쟁외관을 남조선에 심은 것이 현 남조선집권자이다.

그래서 조선반도의 전쟁열기를 한껏 달구어놓는 정작 저자

신은 슬그머니 《해외순방》이라며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고있다.

그 행동은 지난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인민군대의 노도와 같은 진격으로 서울이 함락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자 《무조건 서울을 사수하라》는 특유된 방송을 되풀이하여 내보내고는 저만 살겠다고 남해안으로 뺄소리를 친 이승만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만 같다.

본사기자 김정혁

## 북침전쟁 연습 중지, 독재 《정권》 퇴진을 주장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2월 26일 목요일 집회를 가지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와 독재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규모와 내용으로 볼 때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미국의 《인권재단》



본사기자

참요는 주로 은유적인 수법으로 봉건지배계급의 죄악상을 폭로비판하고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던 중세 시가문학의 인민적 유산이다.

대표적으로 성질이 잔인하고 음탕하며 외세사대의 망동을 일삼던 고려 28대 충혜왕을 저주한 《아야가》를 들 수 있다. 그러한 참오가 오늘 남조선에서 재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7일 부산에서 민주부산행동이 조직한 《박근혜 2년 이게 나라냐》라는 민주행진에서는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울렸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 민심이 등을 돌린 《거짓말 정부》

거짓말

부정선거로 권력을 강탈한 집권 2년간을 사기와 협잡, 무능과 불통으로 이어온 남조선의 현 《정권》에 대한 신랄한 야유와 분노의 목소리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대전》에서 현 《정권》이 내세웠던 수많은 거짓 《공약》에 속아 표를 주었던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처참하게 령락되어 삶의 막바지에서 헤매이고있다.

《경제민주화》, 거짓말이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경제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1 100조원, 국

가채무는 1 000조원으로 치달았고 세금증가속도는 소득증가속도의 2배나 되었다.

《서민복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자살 하나만 놓고 보아도 《엄마, 아빠 미안해요.》, 《부모님들 잘 모셔라.》라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있으며 특히 20대, 30대의 사망원인의 1위가 바로 자살이고 로 인자살은 더 심각한 형편이라고 한다.

《세월》호침몰사건이 말해주고 또 최근에 드러난바와 같이 《어린이집》에서의 학대사건이 4년새

27배로 늘어난 것도 《서민복지》의 비현실성, 허황성을 보여준다.

《국민대통합》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황당한 《종북》소동으로 남조선인민들을 적, 아로 구분하는 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물론 현 집권자와 《정권》이 부정선거에 의한 가짜 《대통령》, 가짜 《정권》이라는 것은 남조선인민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약속》은 모두 거짓말 뿐인 것이다.

그런 속에서 자살률 1위, 최저임금 1위, 저임금 노동자 1위, 국가채무 증가율 1위, 1인당 세 부담 증가율 1위 등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록을 안고 있어 현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끓고있다.

지난해말 남조선의 통계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사회가 불안스럽다.》고 개탄하며

그 원인을 《인재》 즉 현 《정권》의 무책임, 무능, 불통으로 꼽았다고 한다.

오죽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종진들속에서도 《일반적으로 오만한 정부가 나쁜 정부인데 오만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는 무능한 정부고 무능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는 거짓말하는 정부》, 《무능한 정부는 참을 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하면서 《한마디로 지리멸렬, 오리무중상태》라고 할 정도다.

올해 설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현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평가는 《정개구리정부》, 《남탓정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지난 2년은 한마디로 《배신의 2년》, 《절망의 2년》, 《아무것도 한일이 없는 허송세월의 2년》이라는 평가였다.

얼마전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권》의 10대 실정을 《서민증세, 전월세 대란, 압담한 고용노동시

실현을 위한 경남도민대회》에서도 《박근혜 《정권》 2년은 20년만큼 길었다.》, 《이 기간동안 민생경제는 완전히 파탄나고 남북관계는 시한폭탄, 서민에게는 세금폭탄, 민주주의는 공안폭탄을 날렸다.》며 《박근혜는 물러나라!》는 분노의 웨침이 크게 울려나왔다.

인민들이 발발개만큼 여기저기 않는 가짜 《대통령》, 가짜 《정권》이 거짓말로 인민들을 계속 우롱하고있으니 남조선에서는 옛시절의 참오와 같은 노래가 울리고 1960년대 이승만을 《하야》 시킬 때 터져나왔던 구호 《부투쟁의 함성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에서 세차게 울려나오고 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민생회복, 민주수호 평화

서철수



반 《정부》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 복 리 문 제 의 기 초

어느 사회에서나 복리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적 부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은 물론 로인들과 아이들, 장애인, 실업자들을 비롯한 사회적인 취약계층의 생활에 대해서도 정치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남조선에서도 최근년간 《복지》문제가 인민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현 집권자도 지난 《대선》 시기 권력을 쥐기 위해 《3대복지공약》을 내세웠었다. 유권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로인세대의 환심을 사려고 로인들

을 위한 기초연금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것도 그 하나이다. 물론 여기에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다짐과 《반드시 지킬 공약만 내겠다.》는 달콤한 말도 첨부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고있는가.

1년이 채 되기도 전부터 《재정적부담》을 떠들면서 기초연금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집어던지었다. 집권 3년이 되는 지금 《복지》문제는 경제문제에 밀려워 속들어가고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야간의 허무한 말싸움만 계속 벌어

지고있다. 《복지》문제가 빈정 치구호로 되고 해결이 도 무지 안되니 로인들은 더욱 살기 어려워져 전체 로인의 20%에 해당하는 110여 만명이 자식들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길거리를 방황하며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지어 쓰살의 길을 택하고있다고 한다.

어디 이뿐인가. 삶의 막바지에서 허덕이는 빈곤층은 무려 1 000여만명에 이르고있다. 련애,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와 불안, 불만, 불신으로 가득찬 《3불세대》가 늘어나고 한해에 1만 5 000여명의 자살자가 생겨 살고싶지 않은 《자살왕국》으로 되고있는 곳이 남조선이다.

그에 비해보면 한지맥으로 잇닿아있는 여기 공화국에서는 복리문제가 얼마나 잘 해결되고있는가.

남조선에서는 지금에 와서야 말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있는 이 문제가 공화국에서는 벌써 수십 년전 인민정권이 세워진 첫날부터 국가의 주요정

책으로, 시책으로 되어왔다. 해방후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도 북조선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연필문제를 상정하고 해결한것은 그 생동한 하나의 실례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화국의 가장 우월한 무상치료제도 일찌기 온 나라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부터 실시되어오는 국가의 인민적시책이다.

공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태어나서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돈 한푼 받지 않고 무료로 돌보고 교육시켜주고있다. 이것 또한 남조선에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특이한 시책이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 정휴양제, 유급휴가제, 영예군인우대제, 장애인보호정책 등 국가가 인민들을 위해 베풀어주는 고마운 시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최근년간에는 문서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창천거리, 룡라인민유원지, 인민야외빙상장, 류경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하여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도처에 수풀처럼 일떠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어디서나 더 높게 울려 퍼지고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세상이 부러워할 멋쟁이 육아원, 애육원도 대동강변에

일떠세워주어 이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낮으로 울리고있다.

공화국이 돈이 많아서 이 많은 시책들을 인민을 위해 베풀고있겠는가. 공화국의 사회가 원래부터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인민을 위한 사회이기에문이다. 정치도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흘러왔다.

세상에 대고 《복지》문제에 대해 제일 큰소리를 칠 나라는 보다싶이 공화국이다.

결국 복리문제는 어디에

기인하는가. 그 기초에는 제도가 놓여있다. 인민이 주인된 공화국의 사회가 바로 세인이 갈구하는 복지천국이다.

반대로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집권자가 대기업, 가진자들의 리익만을 대변하는 남조선과 같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에서 복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인민들에게 한갓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본사기자 김철호



##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

5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가 서울 종로구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남조선시민단체 성원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우리 마당》대표 김기중은 이날 아침 강연회장에 나타나 강연준비를 하고있는 리퍼트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웨치며 그에게 정의의 칼세례를 안겼다.

이로 하여 리퍼트는 얼굴과 손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급히 실려가 두 차례의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김기중은 지난 2010년 7월에도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그 무슨 《공동번영》에 대해 떠드는 남조선주재 일본대사에게 벽돌세례로 항거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경찰에 련행되어 끌려가면서도 그는 전쟁반대와

미국남조선합동군사훈련 반대구호를 계속 웨쳤다. 남조선의 《KBS》, 《CBS》, 《MBC》 방송을 비롯한 각 언론들이 이 징벌 사건을 보도하였고 미국대사가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었다.

미국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속보로 전하고있다. 미국 CNN방송은 김기중이 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한다고 웨쳤다는 남조선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반미감정에 의한것》이라고 밝혔다. 남조선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미국관련시설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있다고 한다.

반미기운이 높아가고있는 속에 벌어진 이 사건은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조선반도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있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민심의 반영이고 항거의 표시이다.

본사기자



##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주장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대전평화의 소녀상건설 시민추진위원회가 1일 대전에서 모임을 가지고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주장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일본의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를 고발하는 소녀상이 대전에 세워진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의 력사의곡행위가 우심해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이를 외면하고 일본군성

노예문제해결에 눈을 돌리지 않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그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의 해결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1일 남조선집권자가 《3.1절기념사》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신티프로세스》니, 《통일준비》니 하는 판에 박은 타령을 늘어놓다가 북이 《평화와 체제안정을 보장받을수 있는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주제넘은 발언을 또다시 했다.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다. 지금껏 공화국이 그에게 북남관계문제에 대해 알아들을만큼 깨우쳐도 주고 경고도 했지만 마이크 앞에서 서면 제후에 겨워 뺨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 모르고 천박한 언행을 일삼는 남조선당국자의 행동은 풍부한 조선말로도 무엇이랴 표현할 방법이 없다.

미국과 남조선군의 방대한 침략 무력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기 위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집결한 때에 울

러나온 남조선집권자의 《개방》과 《변화》 타령은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물건대 현 집권자에게 과연 북남관계와 통일을 운운할 한조박의 량심이나 있는가. 북남관계에서의 대 전환, 대변혁을 가져오자는 동족의 성의있는 호소는 외면하면서 온 남조선땅을 북침핵공격기지, 출발점으로 삼았에게 섬겨바친 남조선집권자는 입이 열개라도 《대화》니, 《민족》이니 하는 말을 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고 남조선집권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의 불순한 흥심만이 짙 차있을뿐이다.

하기에 그가 말한 《진정성있는 대화》, 《리산의 아픔치유》, 《민간교류》니 뭐니 하는 발언들

도 악랄한 《체제통일》야망을 감추기 위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리성있는 사람들은 꿰뚫어보고도 남음이 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야당대표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방적인 제안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간것이 없다.》고 《기념사》를 혹평했겠는가.

남조선보수당국이 외세에 대한 굴종과 추종에 계속 매달려 대결과 전쟁연습소동강화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한 북남관계가 조금도 개선될수 없고 이 땅에서 총돌과 전쟁밖에 초래될것이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에는 동족의 성의있는 호소를 뿌리치고 외세와 북침을 노린 불량난소동에 같이 뛰어드는 남조선집권자는 더이상 민족을 기만우롱하는 말장난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김철민



## 우크라이나사태의 장본인은 미국

세상에 미국처럼 《평화》와 《안정》에 대해 많이 떠드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평화의 파괴자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평화》를 운운하며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나라가 미국이고 《정세완화》와 《안정》을 떠들며 해당 나라와 지역에서 분쟁과 대결을 추구하는 나라 역시 미국이다. 우크라이나사태도 그것을 잘 보여준다.

얼마전 이전 우크라이나수상 니콜라이 아자로브는 우크라이나정변의 뒤에는 미국이 있었다고 폭로하였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현 우크라이나수상 야제뉴크가 우크라이나정변이 일어날 당시 매 일같이 끼에브주재 미국 대사관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서방이 나토가입을 거부한채 유류동맹과의 협정체결을 망설이던 우크라이나정부를 바로보지 않았으면서 그 결과 우크라이나가 붕괴되고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많은 사망자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유라시아대륙이 차지하는 전략적의를 중시하고 1990년대초 소련이 붕괴된 직후부터 이전 소련가맹공화국들을 친미 국가로 만들기 위한 모략책동에 광분하였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지정학적위치로부터 출발하여 《자유, 민주, 인권》을 전면에 내걸고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를 배후조종해왔다. 이를 위해 소련이 해체된 때로부터 20년동안 우크라이나에 50억US\$의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어 극우 민족주의단체와 정당들, 폭력적인 신나치조직들을 비롯한 반정부단체와 조직들을 만들고 무기까지 공급하면서 반정부음모를 사촉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서방적인 인물들을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요직들에 올려놓아 서방이

널고 부정부대를 조장시킴으로써 주민들속에 친로씨야적성격인 당시 야누쇼비치정권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였다.

이어 미국부대통령 바

이덴은 야누쇼비치에게 전화로 대통령자리를 내 놓으라고 강박하고 미국무성 부장관은 끼에브주재 미국대사에게 전화로 《정권교체후 대통령은 누가 하고 총리, 장관은 누가 맡아야 한다.》고 우크라이나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해나섰다. 이러한 미국의 지지와 배후조종 밑에 야당세력들과 반로씨야운동을 주장해온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조직을 비롯한 극우주의적인 민족주의세력들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거리들에서는 매일과 같이 반정부시위가 벌어지고 그것이 확대되어 무장총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야누쇼비치정권에 넘겨쳐워 지난해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촉발시킨것이다. 지금 미국은 날로 복잡해지고있는 우크라이나사태를 《조정》한다고 하

면서도 우크라이나정부군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강화할 움직임을 로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긴장과 대결을 더욱 조장하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는 침략전쟁에 직접 개입하여 합법적인 정권을 뒤집어엎었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전에 여러 나라들에서 썩은 《색갈혁명》을 본따 반정부세력을 뒤에서 조종하고 내밀어 내전을 일으키고 정권을 교체하였다.

문제는 미국이 전쟁의 방법이든, 내정간섭의 방법이든 깊숙이 개입하여 정권을 교체시킨 모든 나라들에서 정세가 더 악화되고 지역의 안정이 언제가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침략과 간섭의 촉수가 뻗친 여러 나라들과 지역정세를 지켜보면서 여론들은 《세계평화의 교란자》, 《안정의 파괴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 축복을 받으시라

3월 8일은 전세계 근로 여성들의 명절인 국제부녀절이다. 1910년 단마르크의 코뮌하브에서 17개 나라 여성대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자녀대회에서는 3월 8일을 매해 전세계근로여성들의 명절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부터 3월 8일은 평화와 민주주의, 여성들의 평등과 권리,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전세계근로여성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그 위력을 시위하는 날로 기념되어왔다.

공화국에서는 여성들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사회적진출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어디에 가나 여성들을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내세워주는

여성존중의 사회적분위기가 차넘친다. 특히 3.8국제부녀절은 공화국에서 여성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의의깊은 날로 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3.8국제부녀절을 계기로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꽃송이도 주고 축하장이나 그림엽서를 주면 좋아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가정과 사회, 조국을 위해 남모르게 바쳐가는 여성들의 수고를 헤아려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공화국의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마다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떠받들려우고있다.

얼마전 설명절을 맞으며 TV에서 마련한 경축무대에서도 여성들과 안해들에 대한 사랑을 담은 《우리 집사람》의 노래 선율이 구수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져 모두를 기쁘게 하고 설명절의 즐거움

을 한껏 북돋아주었다. 3.8절을 앞두고 신문, 방송, TV를 비롯한 대중보도수단들에서는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식의 글과 사진, 소개편집물, 영화, 노래 등이 집중방영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국제부녀절이 국가적휴식일로 되어있다.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받는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날은 축복과 기쁨의 분위기에 호른다.

이날이 오면 아침일찍 일어나 《식사당번》을 도맡아하는 남성들도 꾸준히 늘고있다. 3.8절날 풍경에서 빼놓을수 없는것이 꽃상점과 꽃매대들, 축하엽서상점들에 차넘치는 남성들의 모습이다. 이날이면 꽃상점에는 스승인 녀교원에게 안겨줄 꽃다발을 고

르느라 여념이 없는 제자들, 사랑하는 안해에게 안겨줄 카네손, 장미를 비롯한 향기로운 꽃송이를 안고 나서는 남성들로 붐빈다.

옥류관, 청류관, 룬못관, 향만루대중식당, 해맞이식당을 비롯한 많은 식당들에서도 이날에 찾아올 특별히 많아질 남녀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벌써부터 붐빈다.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계획을 세운 부부들도 많다고 한다.

3.8절을 앞둔 지금 《봄향기》 화장품매대들과 《코스모스》 머리핀매대들도 많은 손님들로 붐비고있다.

이해의 국제부녀절,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서 여성이 얼마나 중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줄 유쾌한 그날이 다가오고있다.

김춘식



## 담시 정월대보름날의 소원

김영일

정월대보름날의 저녁 사랑하는 손녀의 손에 이끌려 할아버지 달구경을 나왔네 세월이 좋아 젊어만지는 할아버지 마음 손녀와 함께 동심에 잠겼는가 내딛는 발걸음도 가볍네

손녀는 쉬임없이 짙고 까부네 《왜 달이 안보일가? 내가 맨 먼저 보름달을 봐야 할텐데...》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묻네 《왜 네가 보름달을 먼저 봐야 하지?》

손녀는 기뻐서 퐁퐁 뛰고 깊어지는 할아버지의 생각 저 남쪽에도 보름달은 떴으면... 전정연습 불구름에 덮이여 내 고향 제주도에서는 보이거나 할가

귀여운 손녀는 대답하네 《음, 그건 저... 비밀이에요》 할아버지의 호랑한 웃음 《안다, 알어 네 비밀을 내 말해볼가 할아버지는 모르는데 없거든》

손녀는 깡충깡충 뛰며 고운 손으로 할아버지 입을 막느라 법석이네 《말하면 안돼요 보름달을 보며 생각해야 한뎡어》

손녀의 소원우에 할아버지 소원도 절절해지네 《분이야, 너의 소원 할아버지 소원 통일을 이루려면 미국놈 몰아내고 이 땅에 평화를 안아와야 한다》

보름달 보며 간절히 없어보는 손녀의 소원 할아버지의 소원 겨레의 그 마음 알아서인가 북과 남 가림없이 밝은 빛 뿌려주네 정월의 대보름달 삼천리를 비치네

꽃으로 행운을 기원하거나 즐거움을 표시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귀빈이 오면 환영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어린 이들이 비행장이나 역에서 꽃다발을 증정한다. 예술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청중들은 무대에 올라 꽃다발을 안겨주며 감동을 표시한다. 입학식이나 졸업식때는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며 병문안을 갈때는 완쾌를 빌면서 꽃다발을 준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사이에서도 애정의 표시로 꽃송이나 꽃다발을 준다. 이처럼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거나 위로할 일이 생기면 꽃으로 마음을 표현하고있으며 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있다. 대부분의 꽃은 따뜻한 곳에서 자라고 피어나나. 그러므로 꽃이 있는 곳

꽃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여기에서 나왔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수 있는 최상의 선물을 찾던 사람들이 꽃의 이러한 상징에서 주목을 돌리게 된것이다. 이로부터 누군가에게 꽃을 바치거나 준다는것은 자신의 《열린 마음》, 《순수한 마음》을 바치는 의미로 통하기 시작했다. 어떤 물건보다도 꽃을 선물하는 풍속이 많은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있다. 또한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중에는 악한이 없다.》는 말도 꽃이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키며 부정함을 멀리하게 함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 미래의 인재들을 키워낸다

공화국에는 사회와 집단,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애국의 지혜와 헌신의 담방울을 바쳐가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다. 그 많고많은 여성들중에는 나라의 후대중시, 미래중시정치를 받들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많이 키워내 소문이 난 평양동흥유치원의 리경순원장도 있다.

이곳 유치원어린이들이 해마다 성황리에 열리는 전국서예추진과 전국방송추진 피아노부류에서 금메달과 1등을 놓치지 않고 그들이 자라나 인민

의 사랑을 받는 재능있는 연주가, 유명한 서예가, 창작가로 활약하고있는데 이곳 유치원의 리경순원장과 교양원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유치원교육에서 기본은 어린이들의 하루생활을 노래와 춤으로 일관시키고 정서적인 선률과 활동으로 아이들을 깨우쳐주고 지적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깊이 명심하고있는 리경순원장은 정서적이고 활동적인것을 즐기는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술

적재능을 심어주고 문화적 소양을 끊임없이 높여주기 위해 애쓰고있다.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일본새, 언제나 새것만을 인정하는 높은 요구성, 이것이 그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 교양원들의 자질에서도, 어린이들의 예술적기량에서도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고 세상을 놀래울 예술신동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는것이 그의 목표이다. 언제나 기발한 착상과 새로운 안목으로 어린이 교수교양에서 나서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교육실천에 구현하는 그는 조기에 예술인재교육에서 늘 앞장에서 서서 실천적모범으로 교양원들을 이끌고있다. 꼬마서예가, 꼬마피아노연주가들을 훌륭히 키워내고있는 박은경, 김성희 교양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금싸래기를 팔라내듯 천성적인 소질을 가진 어린

이들을 하나둘 찾아내어 체계적인 교육을 주는 나날에 지새운 밤은 얼마만지 모른다. 얼마전 유치원의 내외 부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번듯하게 꾸릴 때에도 그는 선을 하나 굵고 그림을 하나 그리고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어린이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누며 어린이들의 재능의 나라를 더 활짝 꽃피워주는데 도움이 될 보다 훌륭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좋은 착상들을 내놓아 교양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하기에 오늘 평양동흥유치원은 조기에 예술교육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단위들에 수여하는 2중1월 25일모범유치원칭호를 수여받은 단위로 자랑떨치고있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받들고 애국의 담과 열정을 바쳐가시는 박은경, 김성희 교양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금싸래기를 팔라내듯 천성적인 소질을 가진 어린

본사기자



황사현상이란 누런 먼지 즉 아주 작은 먼지알갱이들이 대기의 높은 층을 고르롭게 뒤덮는 현상을 말한다. 황사현상은 봄철에 자주 생긴다. 황사현상은 황토지대와 사막지대에서 생긴 강한 저기압에 의하여 형성된 돌개바람에 의해 대기상층으로 끌려올라간 먼지가 공기흐름을 따라 이동하면서 나타난다. 황사현상은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다. 그것은 낮에 잘 나타난다. 황사현상이 있을 때에는 구름이 끼지 않았어도

하늘은 누르끼레해지고 태양은 희거나 약간 누렇게 보인다. 이러한 황사현상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세한 먼지에 포함되어있는 각종 유독성물질과 비루스들은 사람의 건강에 매우 나쁘다. 그것들은 사람의 호흡기관과 눈과 피부에 직접 작용하여 건강을 해치고 각종 비루스를 옮겨 질병을 퍼뜨린다. 황사가 심할 때에는 보호안경을 쓰는것이 좋다. 호흡기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황사현상이 있으면 될수록 밖에 나가는것을 삼가하는것이 좋다. 특히 로인이나 어린이들은 이런 날에 밖에 나가는것을 삼가해야 한다. 밖에

서 다닐 때에는 손수건이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고 다녀야 한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에는 꼭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남새와 과일 등은 언제나 잘 씻어 먹어야 한다. 사무실과 살림집의 출입문, 창문을 통하여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한다. 자그마한 황사면지에도 심한 알레르기성증상을 발생시킬수 있다. 황사현상을 미리 막자면 산림자원을 늘리고 풀판을 잘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황사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건강관리에 힘을 넣도록 해야 한다.

김만유병원 박사, 부교수 김춘섭

## 성문건축의 표본 - 대동문

평양의 대동문기슭에 있는 대동문은 6세기 중엽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 처음 세워진 후 고려초기인 947년과 조선봉건왕조초기인 1392년에 고쳐 세운 일이 있다. 지금의것은 1635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대동문의 문루에는 박위가 쓴 《읍호루》라는 현판과 양사언이 쓴 《대동문》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읍호루》란 문루에서 손을 아래로 드리워 대동문의 맑은 물을 떠올릴수 있다는 뜻으로서 대동문이 아름다운 자연풍치에 잘 어울리면서 강기슭에

솟아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대동문은 화강석을 다듬어 쌓은 정교한 축대와 그우에 세운 웅장한 문루로 이루어졌다. 대동문의 합각지붕은 마루선들과 지붕면이 그 어디서 보나 한결같이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을 이루고있어 매우 아름답다. 대동문은 평양의 6대문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성문이었다. 문의 높이는 19m이다.

대동문은 고려의 건축술을 이어 발전시킨 조선봉건왕조전기건축의 형식과 구조상특징을 가진것으로서 장엄함과 아름다움, 경제성을 갖춘 우리나라 성문건축의 표본으로 되고있다. 대동문은 평양의 유구한 역사와 선조들의 높은 건축술을 보여주는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본사기자

